CSRI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Chungcheongbuk-do Disaster Safety Research Institute

2021 12 vol.68

재난안전 Brief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3

- 충북도, 동절기 교통안전대책 추진 ····· 4
- 충북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 5
- 단양군,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 추진 ····· 5
- 충주시, 비대면 재난안전체험마당 진행 ····· 6
- 옥천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소방안전대책 본격 추진 ····· 6
- 충북도, 코로나19 재택치료'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 ····· 7
- 충주소방서, 충주댐발전소 특별 안전점검 실시 ····· 8
- 보은군,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49개소 구축 완료 ····· 8
- 충북경찰청, 옐로우존 꼬리물기 단속 계도기간 연장 ····· 9
- 충청북도, 의료기관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시행 ····· 10
- 충북도, 일상회복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 강화 시행 ····· 11
- 충북소방본부, 화목보일러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 12
- 청주시 "겨울철 폭설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12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3

-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총 5명 확진자 발생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긴급 시행 ····· 13
- 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범죄 신고 가능 ····· 15
- 소방청,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특별교육 실시 ····· 16
- 전국 493개 도로 구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 17
- 갑자기 발생한 사회재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 18
- 경찰,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전개 ····· 19
- 제11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12.8) ····· 21
- 추워지는 날씨, 미끌미끌 빙판길 교통사고 주의! ····· 23
-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6,200개 시설 점검 ····· 25
-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 ····· 26
- 12.14. 제주 서귀포시 지진(규모4.9) 주요 대처 상황 ····· 27
- 우리 아이 어린이집, '안전'확인해 보셨나요? ····· 28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 29
- 12월 16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30
- 소방청, 겨울철 공사현장 화재예방 현장점검 실시 ····· 31
- 해양경찰청, 함정근무 경찰관 개선 안전헬멧 도입 ····· 34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35

- 홍성군,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35
- 광양소방서, 겨울철 임야화재 예방 드론감시단 운영 ····· 35
- 용인시, 경전철 5개 역사에 CCTV 78대 추가 설치 ····· 36
- 강진소방서, 겨울철 기상상황 분석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추진 ····· 36
- 서울시,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출입로에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 37
- 과천시, 시민 안전 위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 38
- 강화군, 보행자 안전지킴이 LED 바닥신호등 설치 ····· 38
- 울산석유화학단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전국 최초 구축 ····· 39
- 제주, 재난안전문자 '알림톡' 제공 서비스 시작 ····· 40
- 상습 결빙구간 제주 고산동산에 도내 첫 도로열선 설치 ····· 40
- 광주시, 하남·평동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추진 ····· 41
- 구로구, '스마트 우회전 알림이'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42

▮ 집필진

배 민 기 센 터 장 (043-220-1127)

최 신 실 연 구 원 (043-220-1118)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주 소 | (285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충북연구원 420호

홈페이지 | www.cri.re.kr/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csri_cri

재난안전 Brief는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주요 재난안전 정책동향을 시의 적절하게 적시하고
그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월간지로서 충청북도 및 충북연구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북연구원 홈페이지 (www.cri.re.kr)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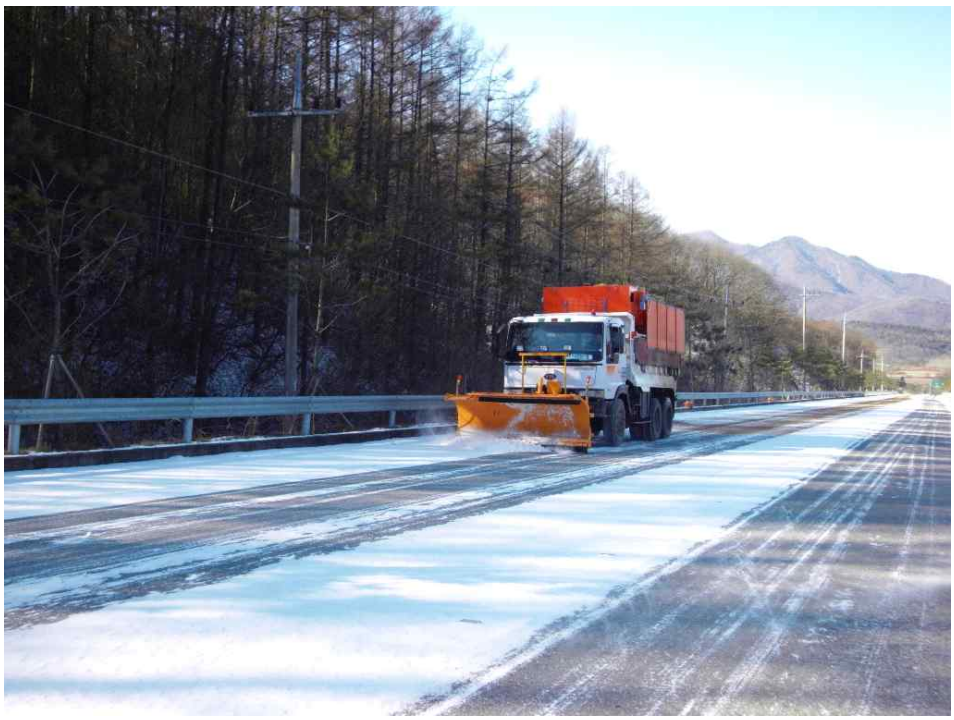
충북도, 동절기 교통안전대책 추진

- 한파, 폭설, 도로결빙 등 교통환경 취약시기로 교통안전 집중 추진 -

주요내용

■ **충청북도는 시군 및 관련 단체와 함께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을 대상으로 오늘(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겨울철 교통안전대책 집중 추진**

- 동기간은 한파 및 폭설 등으로 교량 위, 터널 입·출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구간에서 도로살얼음(일명 '블랙아이스')이 발생하는 시기로, 교통 환경이 매우 취약한 시기
- 따라서, 충북도는 해당 기간 동안 눈길 및 상습 빙판 도로 등 취약지역 점검·보수, 사고발생 시 초동조치 등 교통사고 대비체제 강화, 결빙, 폭설 대비 안전운행 특별교육 실시 등 종사원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
- 또한, 교통안전시설 등의 안전성 저해요인 정비·개선, 차량 정기점검 및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점검·정비,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및 지도점검반 편성·운영 등을 중점 추진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교통정책과
연기호
☎ 043-220-4282

◆ 일자
2021. 12. 1.

충북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 충북도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

주요내용

■ **충북도는 도내 학대위기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내년 초 진천군에 충청북도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 그동안 충북은 청주와 옥천, 제천에 각각 소재한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청주·증평·진천·음성)과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보은·옥천·영동·괴산),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충주, 제천,단양)에서 아동보호 등을 나눠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매년 아동학대 의심건수 및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이번에 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진천군 진천읍 문화4길 29 3층에 설치되며, 4개 군(증평, 진천, 음성, 괴산)을 관할
- 지난 11월 18일 충청북도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달 중 새단장(리모델링) 실시할 예정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응급조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와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 담당
- 도는 이번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로 학대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 및 서비스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정상훈
☎ 043-220-3042

• **일자**
2021. 12. 4.

단양군,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 추진

주요내용

■ **단양군은 겨울철 한파 대비 수도시설 동파방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 추진**

- 군은 동절기 기간 동안 수도계량기 등 상수도시설에 대한 점검반과 비상 급수반을 운영하고 생활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한파와 가뭄으로 인한 급수난에 적극 대처할 방침
- 또한,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62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동절기 가뭄과 동파 대비 시설물을 사전점검하고 물 부족 시 병물 공급과 급수지원 요청 시 휴일 관계없이 신속하게 급수차를 지원할 계획
- 군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수도 계량기 등에 대한 동파예방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겨울철 동파 예방대책 사전준비 철저로 동절기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힘을 다할 예정
-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계량기함 내부를 이불이나 헌옷 등으로 채우고 장시간 외출하거나 한파가 지속될 경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적은 양의 수돗물을 계속 흐르게 하여 동파사고 예방 당부

• **지자체**
단양군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93333

• **일자**
2021. 12. 6.

충주시, 비대면 재난안전체험마당 진행

주요내용

■ **충주시는 7~8일 양일간 지역 내 어린이집 40곳, 어린이 1천200명을 대상으로 '2021 비대면 재난안전체험마당' 진행**

- '재난안전체험마당'은 어린이들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해 안전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종합 안전체험교육 행사로, 매년 현장 진행 방식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개최
- 교육은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화재 대피 등으로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주제로 교구를 이용한 체험 위주의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

- **지자체**
  충주시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93687
- **일자**
  2021. 12. 8.

옥천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소방안전대책 본격 추진

주요내용

■ **옥천소방서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겨울철 화재예방 소방안전대책 추진**

- 겨울철은 화기 취급이 늘어나는 계절적 특성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거시설 등 실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 증가 우려
- 최근 5년(2016~2020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천483건으로 겨울철(521건)과 봄철(461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128명 중 겨울철에 54명(42.9%)이 집중적으로 발생
- 이에 옥천소방서는 이듬해 2월까지 생활 속 화재안전 기반 조성 및 화재취약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5대 전략 29개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다각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
-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공사장·무인점포 등 화재안전관리, 요양병원·요양원 등 피난약자 안전강화,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및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 등을 추진

- **지자체**
  옥천군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93882
- **일자**
  2021. 12. 9.

충북도, 코로나19 재택치료‘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

- 제천 서울병원 등 2개 병원 지정, 재택치료중 필요시 검사와 대면진료 받을 수 있어 -

주요내용

■ **충북도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

-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방침에 따라 재택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검사와 대면 진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9일 제천 서울병원, 진천 중앙제일병원 등 도내 2개 병원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
- 이번에 지정된 단기·외래 진료센터는 재택치료 환자가 치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에 대해서 신속한 대면 진료와 혈액검사, 엑스레이, 주사제 투약 등의 의료 조치로 환자의 안전한 건강 보호와 최근 병상 가동률 증가에 따른 의료체계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 도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는 치료기간 중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15개소)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1일 2회 이상) 받고, 필요시 관할 보건소 지원을 통해 사전에 예약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전문 의료인과 대면 진료 가능

〈도내 재택치료 환자현황(12.10일 0시)〉

• 발생현황 : 현원 76명 / 누적 227명

재택치료자(A)	격리해제(B)	전원(C)	관리현원 (D=A-B-C)
227	132	19	76

※ 지역별 : 청주 138, 충주 38, 제천 12, 보은 3, 옥천 4, 영동 2, 증평 2, 진천 16, 괴산 2, 음성 10
※ 연령별 : 10대 미만 51, 10대 42, 20대 25, 30대 40, 40대 49, 50대 11, 60대 이상 9

- 아울러 도는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음압·격리 병상 등을 보유한 도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지속 파악해 단기·외래진료센터(청주권·남부권 등) 추가 지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
- 이 밖에도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하여 재택치료키트 및 의약품의 신속한 배부, 휴일·야간 응급상황시에 대비한 비상 이송체계 구축 철저 등 재택치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감염병관리과
최선익
☎ 043-220-4563

• 일자
2021. 12. 10.

충주소방서, 충주댐발전소 특별 안전점검 실시

주요내용

■ **충주소방서는 최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안전점검 실시**

- 이번 점검은 지난달 17일 발생한 청주시 대청댐발전소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진압 시 수손피해가 크거나 감전 같은 추가피해가 예상되는 박물관, 발전소 등에 주로 사용되는 가스소화설비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에 주로 설치
- 우수한 소화능력을 가졌지만 밀폐된 공간 내에서 방출될 경우 공기 중의 산소 농도 저하로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 요구
- 소방당국은 용기검사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했으며,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 검토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경보장치가 울리고 30초 후에 작동되므로 경보장치 작동 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며, 관계자는 평소에 안전수칙 매뉴얼을 숙지하고, 유사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훈련 실시 필요

◆ **지자체**
충주시

◆ **출처**
충청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94120

◆ **일자**
2021. 12. 12.

보은군,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49개소 구축 완료

주요내용

■ **충북 보은군은 군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주민생활안전 다목적 CCTV 구축 사업 완료**

- 군은 올해 군비 4억 5000만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원 등 6억 5000만원을 투입해 방범취약지역과 주민 및 차량의 이동이 많은 국도, 지방도 등 28개소에CCTV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노후 CCTV 중 화질저하로 양질의 영상촬영이 어려운 21개소에 대해 교체를 완료
- 이번에 설치한 CCTV는 군에서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13명의 모니터링 요원에 의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군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는 총 765대로 올해 지역 내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127건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 및 소방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수사를 위한 280건의 영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군민의 안전 확보에 많은 역할 수행

◆ **지자체**
보은군

◆ **출처**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0013

◆ **일자**
2021. 12. 13.

충북경찰청, 옐로우존 꼬리물기 단속 계도기간 연장

주요내용

■ **충북경찰청은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곳에 설치한 옐로우존(Yellow Zone)에 대한 꼬리물기 단속 계도기간을 오는 1월 14일까지 연장 시행**

- 현재 흥덕구(대농교4R, 옥산4R, 흥덕고4R), 상당구(방서교4R, 용정4R, 다문화가족센터3R), 청원구(동청주세무서4R, 다나여성병원4R)에 옐로우존 설치
-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 부과
- 경찰은 당초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도입하는 옐로우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계도기간 연장
- 그동안 옐로우존 설치 지점에 현수막 16곳, 홍보 배너 29곳, 진행방향별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지난 한달 간(11월 15일~12월 14일)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을 통해 257명의 위반 운전자에게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 추진
- 향후 옐로우존의 설치 효과 분석을 통해 도내 주요 정체 교차로에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

◆ **주관기관**
충북경찰청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94597

◆ **일자**
2021. 12. 14.

충청북도, 의료기관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시행

-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

주요내용

■ **충청북도는 최근 청주시 소재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16일부터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시행**

- 도내 의료기관은 병원급 113개소, 의원급 1,775개소로 총 1,888개소이며, 올해 하반기 현재(7.1.~12.15.) 도내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는 120명 발생
-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를 통한 감염으로, 이번 방역대책은 종사자에 대한 방역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

■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권고하고, 종사자 의료기관 내 생활환경 관리도 강화**

- 종사자들은 접종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종사자 주1회 유전자증폭(PCR)검사와 타 시도 방문 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근무복귀 전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
- 탈의실, 휴게실 사용 및 식사 시 시차를 적용(2인 이상 접촉 자제)하며, 타 지역 방문 및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미접종 간병인 등 종사자의 환자접촉 업무배제를 권고(요양병원은 의무)
- 또한, 의료기관 시설·운영 관리도 강화하는데, 환기·공조시스템 수시 관리 및 환기·소독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관리(1일 2회 이상)
- 이와 함께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 특별점검을 도와 시군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특별 방역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강화된 추가 대책으로 집단 발생을 차단할 예정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5675129)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보건정책과
이재명
☎ 043-220-3142

◆ 일자
2021. 12. 16.

충북도, 일상회복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 강화 시행

- 사적모임 규모 축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

주요내용

■ **충청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방침에 따라,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한 방역조치를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

-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급증한 가운데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코로나19 긴급 위험도는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하루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80%를 돌파하는 등 의료와 방역대응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
- 충북도의 경우, 12월 16일 0시 기준 일일 최대인 1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도내 병상 가동률이 94.2%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
-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약 2주간의 방역대책을 확정했고, 충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 **첫째,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 허용**

- 다만, 식당 · 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 가능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둘째, 다중이용시설은 업종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 유흥시설과 식당 ·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은 22시까지만 허용

■ **셋째, 사적모임 외의 모임 · 행사는 49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

■ **넷째,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관련 행사 등을 50명 이상으로 개최하려면 방역패스 적용**

- 또한, 충북도가 자체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SSM · 상점 · 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 · 축산 · 건설 · 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고, 더불어, 연말연시 각종 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 개최, 회식·모임 자제, 타 지역 이동자제도 함께 권고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사회재난과
오신영
☎ 043-220-2413

• 일자
2021. 12. 16.

충북소방본부, 화목보일러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주요내용

■ **충북도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추진**

-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사고는 81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부상 1명과 재산피해 8억원 발생
- 화목보일러의 화재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다수 차지
- 주로 시골 외딴 지역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고 산불로 확대될 우려도 있어 각별한 주의 요구
- 화목보일러는 현행법상 소화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한 강제 불가
- 이에 충북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가구 등과 산림에 인접한 가구 100여 곳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
- 화목보일러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기존 수도 배관을 연장해 보일러실 천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1가구당 6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30분이면 손쉽게 설치 가능
- 사용되는 물품은 ㈜하이트진로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았으며, 설치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충북도회와 의용소방대원 중 배관·보일러 시공 유자격자를 선발해 자체 교육을 통해 설치에 나설 계획

- **주관기관**
  충북도청
- **출처**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1426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1426
- **일자**
  2021. 12. 19

청주시 “겨울철 폭설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주요내용

■ **청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1월 말까지 폭설대비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기간 운영**

- 풍수해보험은 겨울철 폭설뿐만 아니라 여름철 폭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보장하는 정부 운영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를 의미
- 1년 만기 소멸성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청주시 지역 내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최고 90%까지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되며,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 가능
- 청주시는 현재 43개 읍면동주민센터에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가동 중이며,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연중 언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가입이 가능

- **지자체**
  청주시
- **출처**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1713
- **일자**
  2021. 12. 20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총 5명 확진자 발생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긴급 시행

주요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30일(화)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어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들 중 3건은 검사결과 오미크론 변이 확인**

- 지표 부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11월 24일 입국한 분으로 격리면제 대상자였으며, 입국 당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여 11월 25일 확진

  * 10월 28일 모더나 2차 접종 완료. 11월 14일~ 23일 나이지리아 여행. 11월 23일 나이지리아 출발 에디오피아 경유하여 11월 24일 15시 30분 인천공항 입국

■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오늘 1차 회의 개최**

-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처* 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

  * 질병청, 복지부,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 국토부, 식약처 등

- 주1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해외동향 파악, 해외유입 차단, 변이 감시·분석, 국내 전파 차단 등을 위한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TF에서 협의된 사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

① 해외유입 관리 강화

-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입국자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검토된 사안은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② 변이 감시(Genomic Surveillance)강화

- (해외유입 감시)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오미크론 변이 여부 확인

- (지역사회 발생 감시)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이 확인을 위한 전장 또는 타겟 유전제 분석을 실시할 계획

  ※ (예) 델타 음성인 경우 등

- (변이 특이 PCR 개발) 현재는 PCR 검사로는 코로나19 진단은 가능하나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

- 신속한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변이 분석시약 개발 지원 TF (11.30.)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제조사의 제품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효성 검토를 거쳐 보급할 계획

◆ 주관부처
질병관리청

◆ 문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김영미
☎ 044-719-9374

◆ 일자
2021. 12. 1.

③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

- (역학조사 강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 강화

  ※ 현재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등 1순위 대상자만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완료

- (자가격리 강화)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

- (환자관리 강화)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 진행

- (위험도 평가개선) 방대본에서 매주(주간평가) 및 4주마다(단계평가)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항목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 등을 반영하는 등 위험도 평가방법 개선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21.12.1. 20시)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 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 위험국가 ·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전) 검사 실시 조치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發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을 선제적 대응조치 발표('21.11.27.)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 · 위험국가 ·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 실시

-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外) 모든 국가발(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하여 실시.

-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 격리면제자 선정 시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에 한정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

-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필수

- 마지막으로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發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 중단

-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

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범죄 신고 가능

- 국민 생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무선통신장치(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 개발 -

주요내용

〈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 〉

〈고정형 비콘〉

〈휴대용 비콘〉

- 〈고정형〉 실내에 비치하여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정보(주소)와 함께 자동 신고
  - 중계기 활용 메쉬 네트워크 방식으로 휴대폰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 전력 소모도 적어
- 〈휴대용〉 휴대폰 앱(App)과 연계,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위치정보(GPS)와 함께 자동 신고

■ **행정안전부는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시스템'을 개발 ***하고, 시범 적용 추진**

* 1인 가구 수 : 총 664만(전체의 31.7%)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 Beacon :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자동으로 인식,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장치

*** 행정안전부-경기도-(주관연구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동연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콩테크 주식회사

-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사용자 개인정보(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등)를 사전에 등록하고, 위급 상황 시 비상벨 버튼만 누르면 메쉬 네트워크*(Mesh Network) 방식으로 연결된 무선주파수(RF) 망, 와이파이(WiFi) 망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고정형과 휴대용 2가지 유형으로 구성

  * 네트워크 장치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구성

- 고정형은 집안 또는 점포 내 상시 비치하여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위치정보(주소)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되는 방식

- 휴대용은 외출 시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과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하여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 자동으로 휴대폰의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

-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 개발 사업은 노인* 등 1인 가구 및 점포의 범죄 취약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R&D)」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연구 과제를 제안하여 2020년에 착수

  * 65세 이상 1인 노인 가구 수 : 총 166만(전체 1인 가구의 25%)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 우선,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효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여 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 인계동, 우만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 또한, 1,3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참여자를 확대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스템 성능, 편의성 등을 보완하고, 소방서와 추가 협력하여 생활안전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

  * 1인 가구 748명, 1인 점포 434명, 아동시설 199명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이슬기
☎ 044-205-6235

• 일자
2021. 12. 1.

소방청,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특별교육 실시

- 전국 담당 소방공무원 80명, 차량 구조원리, 안전조치, 진화요령 등 4시간 교육 -

주요내용

■ **소방청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시·도 소방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적 관심 속에서 '19년 말 등록 9만 대에서, '21년 7월 18.1만 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친환경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7월
계	140,297	180,361	244,158	339,134	461,733	601,048	820,329	1,003,539
하이브리드	137,522	174,620	233,216	313,856	405,084	506,047	674,461	806,808
전기차	2,775	5,712	10,855	25,108	55,756	89,918	134,962	180,966
수소차	-	29	87	170	893	5,083	10,906	15,765
비중(%)	0.7	0.9	1.1	1.5	2.0	2.5	3.4	4.1

- 전기자동차 증가와 함께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17년 1월부터 '21년 8월까지 총 26건* 발생

  * 승용자동차 기준 : '17년 1건, '18년 2건, '19년 7건, '20년 10건, '21. 8월 6건

  ※ 차량화재 현황 : '17년 1,971건, '18년 5,067건, '19년 4,710건, '20년 4,558건, '21.8월 3,105건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일 40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하였으며, 토요타자동차의 전문가를 초빙해 차량 구조원리, 사고 시 안전조치법, 진화요령 등 교육

-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전기자동차는 물론 배터리 및 모터를 사용하는 다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일선 소방대원의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인명구조 교육·훈련에 꾸준히 힘쓸 예정

- 한편 소방청에서는 지난 11월 4일 현대자동차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한 차량 약 300대를 3년간 순차적으로 지원받아 화재진압 등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활용할 예정

  ※ 연간 친환경(전기·수소)·내연기관(가솔린 · 경유) 차량 약 100대 지원

◆ **주관부처**
소방청

◆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조재용
☎ 044-205-7471

◆ **일자**
2021. 12. 2.

전국 493개 도로 구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 17개 시도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청소 등 저감 활동 -

주요내용

■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구간(1,972km)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측정 강화**

*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 다시 날리는 먼지

- 이번 강화 조치는 올해 11월 29일에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시행계획'의 하나로 추진
-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교통량 2만 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총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

■ **(청소강화)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

-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 5℃ 미만인 경우는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물청소 제외

형태	고압살수	분진흡입	진공노면
외관			
원리	다량의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먼지 세척	도로 폭 길이의 흡입구를 통해 먼지를 진공 흡입	브러쉬로 먼지를 쓸어모은 후 흡입 또는 살수

■ **(사전예방)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하여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

-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바일 앱(에어코리아)을 통해 공개할 계획

* 이동측정차량: 도로 미세먼지의 질량농도와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시료채취, 분석,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도록 개조·개발된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 **주관부처**
환경부

◆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종용
☎ 044-201-6926

◆ **일자**
2021. 12. 3.

갑자기 발생한 사회재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 행안부, 지자체 사회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 교육(사회재난아카데미) 실시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그간 행정안전부 내부직원 대상으로 운영해 온 '사회재난 아카데미'를 지자체 사회재난 종사자까지 확대 개편 추진**

- 대형화재, 폭발, 건물 붕괴 등 사회재난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수습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
- 또한,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과 달리 발생빈도가 낮고 유형도 다양하여 재난관리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숙련된 전문가로부터 생생한 재난사례를 통한 교육을 받고 평소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번 교육은 12월 6일 행안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재난 수습·복구 지원체계」에 대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일선현장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될 계획**

- 건물 붕괴사고('21.6.), 화재 사고('21.9.) 등 최근 재난 대응사례를 통해 상황관리반 구성·운영 및 반별 주요 임무·역할 등에 대해 교육
- 또한,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 재난현장 수습지원 사례, 대응 수습 절차 및 복구지원 기준 등 사회재난 전반적인 수습·복구 지원체계를 상세하게 전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을 예정
- 교육 시작 전에는 사회재난 대응 체크리스트와 강의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교육 후에는 해당 강의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 재난현장 수습지원 사례('21 1~10월)〉

재난 · 사고명	수습지원 주요 활동
어선 침몰사고 ('21.1월)	• 통합지원본부 운영지원, 수습활동 조언 • 피해자가족 설명회 개최, 신속한 정보제공
어선 전복사고 ('21.2월)	• 통합지원본부 운영지원, 수습활동 조언 • 피해자가족 설명회 개최, 신속한 정보제공
주상복합건물 상가 화재 ('21.4월)	• 통합지원본부 운영지원, 수습활동 조언 • 피해자가족 설명회 개최, 신속한 정보제공
ASF 현장상황관리관 ('21.5월)	• 거점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확인 • 살처분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확인
건물붕괴사고 ('21.6월)	• 피해자 가족 애로사항 처리 지원 • 지자체 수습활동 조언 및 적극적 참여 제안 등
ASF 현장상황관리관 ('21.8.8~8.11)	• 거점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확인 • 살처분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확인
ASF 현장상황관리관 ('21.8.16~8.18)	• 거점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확인 • 살처분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확인
ASF 현장상황관리관 ('21.8.26~8.27)	• 거점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확인 • 살처분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확인
시장 화재 ('21.9월)	• 임시판매시설 설치 지원 등 수습활동 조언 • 상인들 애로사항 파악 및 신속한 조치
ASF 현장상황관리관 ('21.10월)	• 거점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확인 • 살처분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확인
어선 전복사고 ('21.10월)	• 통합지원본부 운영 지원 및 수습활동 조언 • 피해자가족 설명회 개최 신속한 정보제공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과
소병임
☎ 044-205-6128

• 일자
2021. 12. 6.

경찰,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전개

- 흉기사용 범죄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및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 실시 -

• 주관부처
경찰청

• 문의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탁광오
☎ 02-3150-2170

• 일자
2021. 12. 8.

주요내용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를 엄단하고, 연말연시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 '21년 12월 8일부터 '22년 1월 7일까지 1개월간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특별형사활동 추진**

〈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형사활동 개요 〉

- (기　　간) '21. 12. 8. (수) ~ '22. 1. 7. (금) 〈1개월간〉
- (주요내용) ①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② 흉기사용 범죄 엄정대응, ③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 특별 첩보 수집 기간 운영 및 집중 수사, ④ 현장 맞춤형 대응훈련 실시
- (추진방침) 악성범죄 엄단 및 현장 대응력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

- 우선 범죄 빈발 지역·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하여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고, 특히 스토킹 범죄 흉기사용 범죄, 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

- 또한,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안전 확보

■ **연말연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형사 등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총력 대응**

-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암수 범죄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

-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달리,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예정

- 아울러, 경찰청 관계 기능 합동 TF를 구성, '당사자 간 마찰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형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업무에 대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현장의 행정적·법률적 처리 절차에 대한 24시간 지원·상담 병행

■ **최근 흉기사용 범죄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흉기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전과·상습성 등을 고려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

※ 2021년 1월~10월 '칼'을 이용한 범죄는 총 7,23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7,145건) 1.2% 증가,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흉기를 사용한 범죄의 비중도 1.22%에서 1.31%로 증가

- 특히 강력팀 전담수사, 수사팀 추가 투입, 공조수사 등을 통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세밀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통해 보복범죄 방지 및 2차 피해 차단

■ **외국인 강·폭력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주요 외국인 범죄 조직의 특이 동향 등 특별 첩보 수집 기간 운영하고,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전문수사팀이 집중적으로 수사 실시**

- 또한, 배후세력 및 해외조직 연계 여부 등 종심 깊은 수사를 통해 세력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역량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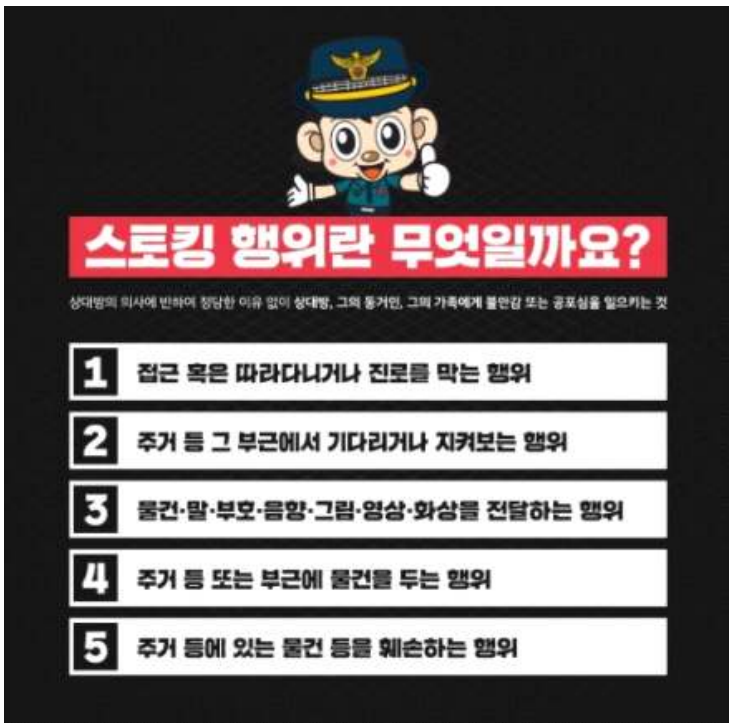
■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

- 가명조서 활용, 핫라인 구축, 석방 사실 통지 등 세밀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통해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방침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 추진

- 이에 따라,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특별히 1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기존 경찰서 형사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등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부서까지 참여하는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

- 아울러, 연인·동료·친구·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



제11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12.8)

-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외 현장실습생 참여기업, 50~99인 제조업도 점검 -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는 12.8.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전국에서 동시점검**

※ (현장점검의 날) '21.7.14.부터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점검,
(내용) 3대 안전조치 〈① 추락사고 예방조치, ② 끼임사고 예방조치, ③ 개인보호구 착용〉
(조치) ① 시정지시, ② 불량사업장은 불시감독

- 이번 점검(12.8.)에는 '22.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과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일부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중대재해처벌법」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 등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 병행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10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23,473개소 점검, 15,108개소 위반)에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808명(건) 적발
- 업종과 규모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각각 73.9%, 84.5%로 대부분 차지

건설업 (7~11월)	점검 사업장	위반 사업장	개인보호구 미착용	제조업 (7~11월)	점검 사업장	위반 사업장	개인 보호구 미착용
계	17,316개소	11,709개소	9,837건	계	6,157개소	3,399개소	971건
3억 미만	4,451개소	2,963개소	2,712건	10인 미만	2,317개소	1,284개소	394건
	25.7%	25.3%	27.6%		37.6%	37.8%	40.6%
3억~ 10억 미만	6,778개소	4,926개소	4,551건	10~29인	2,659개소	1,574개소	426건
	39.1%	42.1%	46.3%		43.2%	46.3%	43.9%
10억 이상	6,087개소	3,820개소	2,574건	30~49인	670개소	369개소	100건
	35.2%	32.6%	26.2%		10.9%	10.9%	10.3%
				50인 이상	511개소	172개소	51건
					8.3%	5.1%	5.3%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 문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 044-202-8904

• 일자
2021. 12. 8.

-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11차 현장점검의 날(12.8.)」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이전보다 특히 강화
-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50인 미만(50억 원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개인보호구까지 착용하지 않는 것 우려
-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부터 경영책임자까지 기본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작동되어야 하고, 구성원 모두가 이를 착실히 준수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을 강조
-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11차 현장점검의 날(12.8.)」의 점검 대상인 2,000여 개 건설·제조업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현장점검'도 병행할 방침

추워지는 날씨, 미끌미끌 빙판길 교통사고 주의!

- 오전 6시~10시, 빙판길 교통사고의 39.3% 발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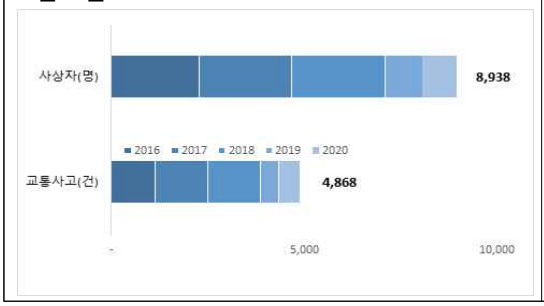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12월에 접어들며 추운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과 밤새 내린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빙판길(살얼음 포함)에서의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 요청**

- 최근 5년('16~'20년) 동안 도로 서리·결빙(살얼음 포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868건이며, 8,938명의 사상자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는 기온이 떨어지는 12월부터 급증(전월 대비 4.7배(1,486건/319건))하여, 최저기온(평균)이 가장 낮은 1월까지 증가

최근 5년('16~'20년)동안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연도별>



<월별>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특히 올해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은 만큼 더욱 주의 필요
- 겨울철 서리와 결빙(살얼음 포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아침 시간인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동 시간대 전체 사고의 39.3%(총 4,868건 중 1,917건) 차지
- 평상시의 교통사고가 저녁 시간인 18시에서 2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오전에 빈발하는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조심

※ 최근 5년('16~'20년)동안 전체 교통사고 1,093,654건, 18시~20시 148,623건(13.5%)

최근 5년('16~'20년) 동안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명)

<시간대별>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임소영
☎ 044-205-4520

◆ **일자**
2021. 12. 9.

■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 등으로 인한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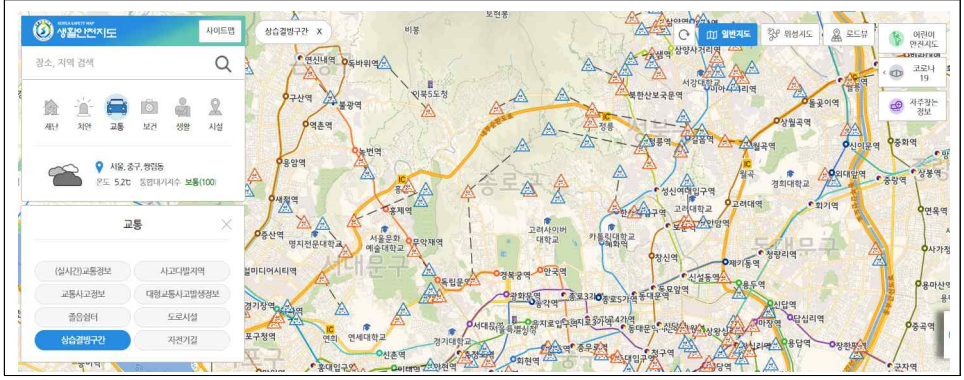
-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미리 구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 점검
- 차량 운행 전 기상 및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결빙이 쉬운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비탈면 구간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운행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속도 50% 감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 살얼음 등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차간 거리 유지
- 또한, 눈이 오는 경우 내 주변의 상습결빙구간*을 미리 파악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

* 생활안전지도 앱 또는 웹(www.safemap.go.kr) → 교통 → 상습결빙구간

생활안전지도 상습결빙구간



출처 : 생활안전지도, 행정안전부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6,200개 시설 점검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조치**

-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
-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장관책임제' 실시에 따라 추진
- 보건복지부는 12.1(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또는 밀집도가 높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7개 시설군**(총6,200개소) 점검

*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 현장점검(12.1)

** 요양병원·시설·장례식장등, 병·의원·약국, 정신의료기관, 이·미용·숙박·목욕장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시설 127개소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방역패스, 출입자 명부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는 환기 기준 미준수,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등 일부 시설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

*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점검, 면회 수칙, 종사자 PCR 의무검사 및 미접종자 환자접촉업무 배제 등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관리, 마스크 쓰기, 소독·환기 등

** 환기 기준 미준수 6건,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3건, 거리두기 안내문 부착 미비, 증상자 출입제한 1건 등

*** 환자 전원시 구급대 신속 지원 요청, 요양시설 종사자 자가격리 등 인력 공백 부담 등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

〈시설별 중점 점검사항〉

- (공통사항)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점검,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 청취, 백신패스 등 강화된 방역관리 사항 안내, 시설 담당자 주관 간담회 등을 통한 자율적 수칙준수 독려

① (요양병원·시설) 입소 전 PCR 검사, 예방접종, 유증상자 업무 중단 등 종사자, 입소자 및 간병인 등 관리 상황,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 연장에 따른 면회기준 준수 여부 점검

② (노인여가복지시설) 추가 접종완료자만 출입 가능, 미접종 종사자는 주1회 PCR 검사 의무, 추가접종완료자 대상으로만 대면프로그램 운영 등

③ (목욕장업) 기본적 방역수칙 점검 강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준수 여부 점검 및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위반사항 적발시 조치사항) 경미한 미흡 사항은 계도 및 안내로 현장 조치하되,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법적 조치

◆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위지원
☎ 044-205-1754

◆ **일자**
2021. 12. 9.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

- 소방청, 난방용품 안전지침서 제작·보급 및 화재안전 현장홍보 실시 -

주요내용

■ **소방청은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난방용품 안전지침서(manual)”45,200부를 제작해 전국 보급**

- 매뉴얼에는 난방용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방법, 화재 사례와 각종 위험요인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으며, 화재시 대피요령과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등 유용한 소방안전 정보 수록
- 전국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는 사회약자와 화재취약대상을 방문하여 매뉴얼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파일(PDF)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 가능
- 최근 5년간 난방용품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전기장판·히터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으며 화목보일러, 전기열선 순으로 많이 발생

최근 5년간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장판·히터	1,956	311	408	299	482	456
전기열선	1,260	216	315	220	269	240
화목보일러	1,330	255	250	196	286	343

-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 생활이 늘어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화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난방용품 안전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화재예방 가장 중요

- **주관부처**
  소방청
-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이청한
  ☎ 044-205-7451
- **일자**
  2021. 12. 10.

12.14. 제주 서귀포시 지진(규모4.9) 주요 대처 상황

- 행정안전부, 추가 지진 대비 중대본 1단계 비상대응태세 유지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14일(화) 17시 19분 제주도 서귀포시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과 관련하여 17시 22분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 지진발생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제주도에 현장상황관리관(3명)을 긴급 파견(17:40)하였으며, 중대본부장(장관 전해철) 주재로 국토교통부, 기상청,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영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18:00)하여 피해상황과 기관별 대처상황 점검
- 15일 06시 기준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 피해 접수는 총 4건으로 주택 창문 및 벽면 균열, 아파트 베란다 및 현관 바닥 타일 변형 등 경미한 상황

  ※ 유감신고(12.15. 06:00 기준) :173건(제주 114건, 전남 37건, 경남 등 22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진 발생과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피해 상황에 대비하여 중대본 비상1단계 유지

  ※ 여진 발생(12.15. 06:00 기준) : 총 13회(규모 1.7 3회, 1.6 4회, 1.5 4회, 1.3 2회)
- 관계부처에서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모니터링할 계획

  * 원안위 : 발전소(5개소)와 방폐장(1개소) 등 원자력 이용시설
  국토부 : 제주공항 활주로·공항시설
  농식품부 : 제주도를 중심으로 저수지 등 14개소
  환경부 : 댐(제주 2개소) 및 상하수도시설 등
- 또한,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별 피해 현황 확인 결과 학교시설에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학교 학사일정 조정 없이 정상 등교
- 한편, 주민 거주시설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제주도와「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운영과 이재민 구호 활동(임시주거시설 총 32개소 및 구호물품 등)을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추가 지진 등으로 인하여 피해 확대 시 범정부 차원의 중앙수습지원단을 즉시 가동할 계획

출처 : KBS NEW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8160&ref=A)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이훈구
☎ 044-205-5191

◆ **일자**
2021. 12. 14.

우리 아이 어린이집, '안전'확인해 보셨나요?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병원·유원시설 등 11종 안전정보 확대 제공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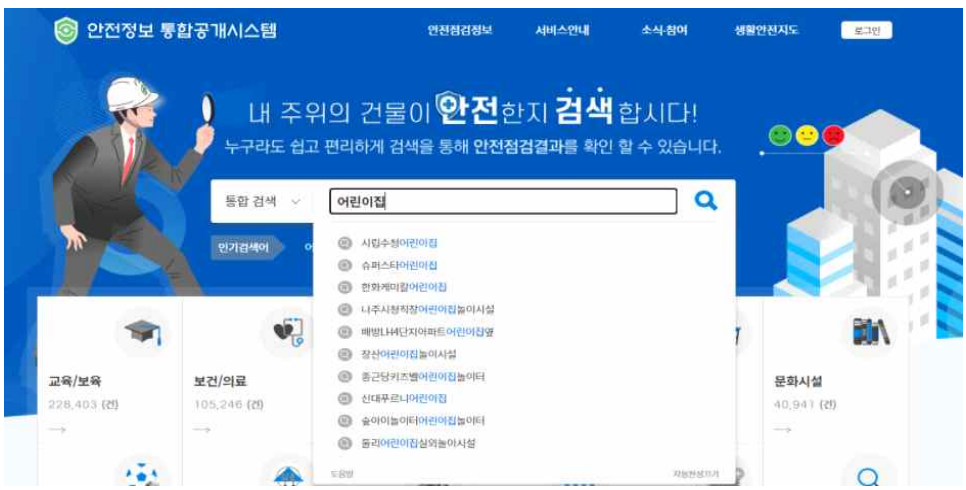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는 건축·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의 확대 개편을 완료하고 12월 15일부터 본격 서비스 개시**

* 시스템 URL 주소 : www.safewatch.safemap.go.kr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해왔던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한곳에 모아서 서비스 제공
-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기존에 제공하던 학교·어린이집·전기시설의 안전정보 뿐 아니라, 병원·유원시설·액화가스시설 등 11종*의 안전정보를 추가로 확인 가능

* 병원, 유원시설, 액화가스시설, 시설물, 식품판매시설, 건설안전, 해체공사장, 원자력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 11종

- 또한, 기존에 불편하게 느껴졌던 메인화면과 검색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기능과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 메인화면 및 지도화면 등의 배치 및 디자인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기 검색어의 위치 변경으로 검색 연계성을 제공하였으며, 시설현황을 상세 분류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
- 시설물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해서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을 통해 안전한 시설물을 보다 쉽게 골라낼 수 있고, 관심시설을 등록해 안전정보 변경 시 알림 수신
-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시스템 및 안전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9일까지 '나만의 관심시설 등록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시스템에 가입 및 로그인 후 관심시설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증정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김형범
  ☎ 044-205-4244
- **일자**
  2021. 12. 15.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 16일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포함

①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

* 건축주 추천 1인을 포함하여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②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

*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

③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

-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도사업 계획 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 생략 가능

*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④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 정비

-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조문 정비

-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

-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팩스: 044-201-5574, 5575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광웅
☎ 044-201-4752

• 일자
2021. 12. 15.

12월 16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환경부 장관,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미세먼지 대응상황 점검 -

주요내용

■ **환경부는 12월 1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함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

- 오늘(12월 15일) 0시~16시 중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서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 충족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중 2개 지역 이상 해당 시 수도권 전체에 대해 위기경보 발령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 우선,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TMS 부착 사업장) 222개와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4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 시행
-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석탄발전 4기(영흥화력 2, 3, 4, 6호기)에 대한 상한제약 시행으로 감축운영을 실시할 계획
-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

※ 해당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5등급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12.15일)

-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

• 주관부처
환경부

•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김경미
☎ 044-201-6871

• 일자
2021. 12. 15.

-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에 서울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방문하여 이용객이 많고 미세먼지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월 16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 개최
-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이 같은 날 중구 도로청소 현장,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3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점검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 기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권고 행동요령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 수정

소방청, 겨울철 공사현장 화재예방 현장점검 실시

- 용접작업시 안전조치 여부 등 점검과 함께 안전교육지침서 배부 -

주요내용

■ **소방청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용접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수칙 교육지침서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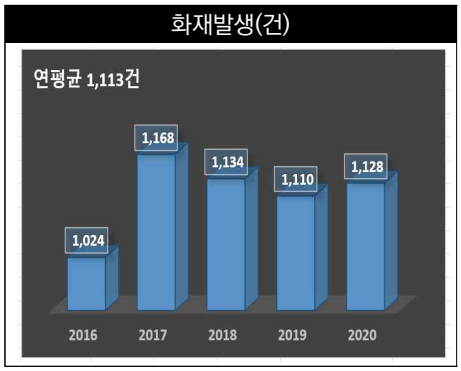
-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로 확보, 가연물 및 화기 관리상태, 용접·용단작업에 대한 교육 및 안전조치 실태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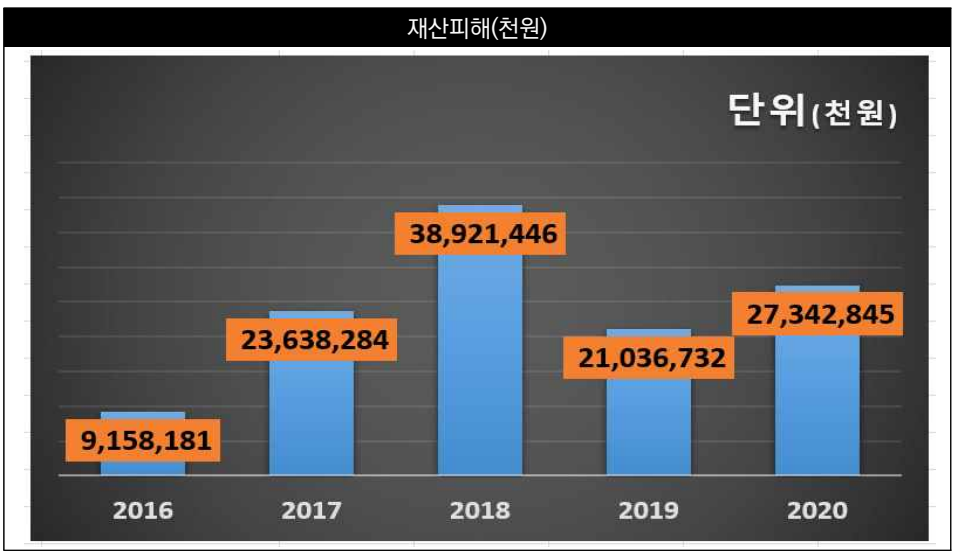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안전교육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 안전수칙, 작업시 유의사항, 단열재·우레탄폼 등 대량 가연물 보관 방법 등 8개 사항으로 구성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16~20년) 용접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총 5,564건(연평균 1,113건)으로 443명(사망 28, 부상 415)의 인명피해와 1,200여억원(연평균 240억)의 재산피해 발생

〈최근 5년간('16년~'20년) 용접관련 화재발생 통계〉





◆ **주관부처**
소방청

◆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이청한
☎ 044-205-7451

◆ **일자**
2021. 12. 20.

〈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용접 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❶

용접작업의 위험성

안전 Tip

용접 · 용단 작업시 발생되는 비산불티의 특성

용융금속은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 정도까지 흩어짐

용접작업 전

❶ 공사 관계인에게 통보(보고)
- 용접작업 장소 및 시간, 용접방법 등

❷ 화재안전조치
- 소화기, 용접불티 비산방지조치(방화포), 가연물 제거

용접작업 중

❶ 가연성 · 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❷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❸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 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용접작업 후

❶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안전조치 사례(비교)

❶ 잘된 사례

❶ 방화포 사용 가연물 도포
❷ ❸ 방화커튼형 비산방지조치

❷ 잘못된 사례

❶ 일반 비닐사용 및 소화기 등 미배치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해양경찰청, 함정근무 경찰관 개선 안전헬멧 도입

- 대국민 시인성 등 기능성이 향상된 현장 맞춤형 안전헬멧 착용 -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근무 경찰관들이 해양사고 대응 등 현장 임무수행 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된 안전헬멧 보급**

-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가형 안전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따른 안전성 및 시인성 부족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해양경찰청은 약 1년간 기능 개선을 위한 수차례의 사양조정 등 시행착오와 시범 착용을 거쳐 금년 10월 대국민 접촉 빈도가 가장 높은 연안해역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선된 안전헬멧 보급 완료
- 금번 개선된 안전헬멧은 특수강화 플라스틱 재질로서 환풍 기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야간 임무 시 식별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 표기 반사 스티커 부착
- 현장 경찰관들의 만족도가 높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은 점을 감안하여 현재 연안해역 함정에만 보급되어 있는 개선된 안전헬멧을 내년부터 배타적경제수역, 파출소 등 모든 현장에 확대 보급할 계획

〈(개선헬멧 착용) 해양 순찰중인 사진〉

〈(개선헬멧 착용) 도서지역 수능수험생 이송 사진〉

• **주관부처**
해양경찰청

• **문의**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김희진
☎ 032-835-2175

• **일자**
2021. 12.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홍성군,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주요내용

■ **충남 홍성군은 어선 사고(화재)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0일까지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충청남도, 보령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어선안전조업국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남당항 등 주요 항·포구에서 어선 30척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
-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구명조끼, 구명부환(해상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부력을 지닌 도구)과 소방 설비 비치여부, 난로, 전열기, 가스레인지 등 화재 취약 부분 설비 상태, 위치식별장치 GPS연동 및 통신장비의 정상작동 확인, 코로나 대응 낚시어선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
- 겨울철은 낮은 수온 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발생하므로 앞으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선사고 제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 지자체
충청남도 홍성군

• 출처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8129

• 일자
2021. 12. 3.

광양소방서, 겨울철 임야화재 예방 드론감시단 운영

주요내용

■ **전남 광양소방서는 겨울철 건조한 기후에 따른 임야나 들불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드론감시단 운영**

- 겨울철에는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인근 산이나 민가, 문화재 시설 등으로 비화·연소 확대돼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화재 빈번히 발생
- 이에 광양소방서에서는 4개 권역 드론감시단 기동순찰, 소방차량 활용 예방순찰,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시 계도, 마을 인접 버스정류장 및 마을회관 산불 예방 전단 및 포스터 배부 등 실시
- 건조한 겨울철을 맞아 차세대 드론을 활용해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해 화재예방을 할 수 있으므로 임야화재 공중감시단 운영으로 논두렁 밭두렁 등 소각행위를 초기에 인지해 임야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등 예방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자체
전라남도 광양시

•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512219

• 일자
2021. 12. 3.

용인시, 경전철 5개 역사에 CCTV 78대 추가 설치

주요내용

■ **경기 용인시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전철 5개 역사에 CCTV 78대를 추가 설치**

- 시는 지난 9월부터 기흥역·어정역·삼가역·고진역·전대역의 엘리베이터 내부, 선로전환기 등 사각지대 78곳을 선정해 공사에 착수, 이달 3일 설치 완료
- 이들 역사 내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됨에 따라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겨울철 강설 시에 열차 경로를 변경하는 선로전환기의 작동 여부, 열선 작동상태를 원격으로 확인 가능

- 앞서 시는 지난 2019년에 경전철 차량 30대 내부에도 130대의 CCTV를 설치한 바 있으며,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용인시청역을 비롯한 나머지 10개 역사에도 CCTV 12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

• **지자체**
경기도 용인시

•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6_0001676543&cID=10803&pID=14000

• **일자**
2021. 12. 6.

강진소방서, 겨울철 기상상황 분석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추진

주요내용

■ **전남 강진소방서는 '18.12월부터 '21.2월말까지 기상상호ㅗ아을 분석 및 최저기온, 겨울철 강수일자, 적설량, 풍속, 결빙지역, 폭설 고립지역을 파악하고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 추진**

- 주요 분석 결과로는 매년 12월 20일 이후 1개월 동안 눈, 비 등으로 교통사고 등 겨울철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폭설·고립 및 도로결빙 상습 지역 3개소 등에 대해서는 출동로 확보 훈련 실시하고, 차량 서행운전을 해당 마을에 당부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행한 시책 시행 예정
- 기상특보 발효 시 단계별 근무체계 구축, 긴급구조대응태세 강화, 차질없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월동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등으로 도민안전과 모든 직원들 안전 확보가 중요한 만큼 반복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에는 군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 등 공조체제 유지가 중요한 만큼 기상특보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

• **지자체**
전라남도 강진군

• **출처**
시민일보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69789590046

• **일자**
2021. 12. 6.

서울시,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출입로에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주요내용

■ **서울시는 드라이브스루 이용 증가에 따른 보도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

- 드라이브스루는 차량에 탑승한 채 주문·결제가 가능한 형태의 매장으로 커피·햄버거 전문점과 같은 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서울 시내 '드라이브스루' 업소의 진출입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실시
-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게 경보 장치 외에도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말뚝인 볼라드와 안내용 점자 블록 설치 필요
- 진입로에는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약 6m)을 확보하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일시정지선 표시 필요
-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진출입로는 기존 보도와 동일 재료로 포장하고 경사 구간은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 필요
-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드라이브스루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물 보강과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를 통해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 등 안전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안전계획을 통해 드라이브스루 매장 안전시설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 기존 매장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를 통해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 매장에 대해서는 매장 개설 시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는 도로 점용 허가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할 방침
- 또 안전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드라이브스루 주변은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

- **지자체**
  서울특별시
-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79TSMAT
- **일자**
  2021. 12. 7.

과천시, 시민 안전 위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주요내용

■ **경기 과천시는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방범용 CCTV 148대를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과 단독주택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에 신규·추가 설치**

- 이번 사업비는 올해 4월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9000만원과 7월에 확보한 1차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활용하여, CCTV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있었던 주암동 오거리 주차로 인근과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골목 입구 등 27곳에 CCTV를 신규 설치
- 또한, 상가 밀집 지역과 시야 확보에 제한이 있었던 주택가 삼·사거리 등 기존 설치 지역 19곳에 CCTV 12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
- 한편, 시는 지난 10월 기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해당 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

- **지자체**
  경기도 과천시
- **출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8130822538
- **일자**
  2021. 12. 8.

강화군, 보행자 안전지킴이 LED 바닥신호등 설치

주요내용

■ **강화군은 군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예정**

- 군은 차량 위주로 이뤄지던 교통시스템을 보행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유동인구가 많은 군청 앞 사거리 등 3개소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했으며, 이달 중 중앙시장 앞 횡단보도 등 3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
-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자의 가시 거리와는 다소 거리가 먼 기존 신호등의 약점을 보완해, 횡단보도 경계석 이음부에 직관적인 신호정보를 전달하고, 적색신호 시에 보행자가 차도에 진입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경고음 송출
- 보행신호등은 보행 중 스마트폰를 사용하는 보행자와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과 우천 시에 밝은 LED신호와 음성 안내로 보도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행신호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출처**
  경인매일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058
- **일자**
  2021. 12. 9.

울산석유화학단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전국 최초 구축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는 울산석유화학단지에 대형 유류저장탱크의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구축**

- 울산소방본부는 16일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해안도로일원에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 장비 시연회' 개최
- 앞서 소방본부는 지난 8일부터 실천 배치에 대비해 장비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고층 건축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70m급 굴절차도 배치

■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사업비 176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돼 특수장비 16대로 구성**

- 대구경(300㎜) 소방호스 2.5㎞를 전개해 분당 최대 7만5000리터(4만5000리터 1대, 3만리터 1대)를 방수할 수 있으며, 방사거리는 최대 110m까지 가능
- 현존하는 국내 장비로는 직경 34m 이상의 대형 유류저장탱크의 화재진압이 불가능했지만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의 도입으로 조기 화재진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입은 2018년 10월 경기 고양저유소 원유탱크 화재 당시 12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진압하기까지 17시간 이상 장시간 소요된 것을 계기로 추진
- 한편 울산의 액체화물 물동량은 2020년 기준 1억5300만톤으로 전국 1위(29%)이며 석유화학 공단지역에서 저장·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은 2354만2000㎘로 전국 39%에 이르며, 70m급 굴절차는 지난해 10월 남구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발생 이후 사업비 14억원(국비 7억원, 시비 7억원)을 들여 중부소방서에 현장 배치
- 최대 작업 높이 70m, 건물 23층 높이까지 전개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3~5명을 동시에 구조할 수 있어 고층 건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

◆ **지자체**
울산광역시

◆ **출처**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09

◆ **일자**
2021. 12. 16.

제주, 재난안전문자 '알림톡' 제공 서비스 시작

주요내용

■ **제주도는 알림톡 기능을 추가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개편 완료로 도민 편의를 위한 신규 서비스 시작**

- 기존 문자전송 서비스의 요금과 송출시간 지연, 부가정보 제공의 필요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문자 외에 알림톡(카카오톡) 발송 기능 추가
- 제주도는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연간 9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재난문자 수신 시간도 기존보다 상당히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송출방식도 알림톡은 대량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고 전송시간이 짧으며, 장문 메시지(LMS)는 건당 24원이지만, 알림톡은 약 5원의 비용이 소요
- 증설을 통해 일반문자 가입자도 이전보다 빠르게 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번에 구축된 송출서비스를 통해 알림톡 발송 미수신 시 문자메시지로 한 번 더 전달하며, 특히 관광객들은 기간 설정을 하면 제주에 머무는 동안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구성
- 제주도는 앞으로 한 달간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 재난안전문자 알림톡 서비스'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
- 가입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쉽고 빠르게 재난문자를 확인할 수 있고, 기상정보와 교통통제 등 부가정보 링크도 제공

-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525089
- **일자**
  2021. 12. 16.

상습 결빙구간 제주 고산동산에 도내 첫 도로열선 설치

주요내용

■ **제주시는 재난안전특교세 1억원 등을 들여 상습 결빙도로인 고산동산 약 200m 구간에 도로열선 시범 도입**

- 열선은 도로 7~8cm 아래 묻으며 영하권이 되면 전기를 이용해 자동으로 작동하며, 이와 함께 물통삼거리와 도남우체국 인근 등 상습결빙 인도에도 소형 염수 분사 장치를 시범 배치
- 또 적설에 대비한 모래주머니 2만여개와 친환경 제설함 213개를 주요도로 경사로 구간에 설치하고 염화칼슘(122톤) · 소금(404톤) · 친환경제설제(34톤)도 비축
- 자체 보유 중인 제설차량 4대(유니목 2, 다목적차량 2)와 덤프트럭 1대 등의 장비를 포함해 첨단로 자동염수 분사 장치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는 민간 장비(15톤 덤프) 2대를 임차해 제설작업에 투입할 예정

-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526513
- **일자**
  2021. 12. 17.

광주시, 하남·평동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추진

주요내용

■ **광주시는 영산강, 풍영정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남과 평동 산업단지에 사업비 1163억원을 투입해 완충저류시설* 설치 추진**

*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화재 시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곧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장이나 도로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이 빗물을 따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환경오염방지 시설

-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면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저류시설에 모아 오염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외부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약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 가능
- 시는 먼저 하남산업단지에 735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2만8000톤 규모의 저류시설과 관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한 상태며 2022년 국비 46억원 확보
- 평동산업단지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산단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가용예산과 투자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방침
- 이번에 설치를 추진하는 하남과 평동 산업단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면적(150만㎡ 이상)과 폐수(5000톤/일)를 배출하고 있고, 조성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단지로 오염물질 유출, 화재 등의 위험 우려
- 지난달 14일 하남산업단지 물류센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소방용수 일부가 풍영정천으로 유입돼 하천에 부분적으로 거품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큰 문제없음
- 완충저류시설은 화재·폭발·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첨단국가산업단지 등 나머지 산업단지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

◆ **지자체**
광주광역시

◆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219010011008

◆ **일자**
2021. 12. 19.

구로구, ‘스마트 우회전 알림이’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주요내용

■ **서울 구로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개봉동 주택가에 ‘스마트 우회전 알림이’ 설치**

- 거성푸르뫼아파트 인근 지하차도(개봉1동 60-83)는 보행자와 통행 차량이 많지만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우려
- 구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확인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개봉1동 거성푸르뫼아파트 인근 지하차도에 ‘스마트 우회전 알림이’ 설치

■ **스마트 우회전 알림이는 운전자, 보행자용 알림패널과 로고젝터 등의 장비로 구성**

- 알림 패널은 LED표지판과 음성 안내를 통해 굴다리 진입 차량에는 보행자의 존재를, 보행자에게는 차량의 접근 상황을 알림으로써 주의력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
- 로고젝터는 ‘차량 접근 중’이라는 문구를 바닥에 비춰 보행자들이 야간에도 쉽게 차량 접근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도움
- 구는 지난 2018년 고척중·구일중을 시작으로 구일초·오류남초·동구로초 등 12곳에서 ‘스마트 교차로 알림이’를 운영 중이며,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 표출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전달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이면도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이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알림이’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행정으로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
- 또한, 미래초·고산초·세곡초 등 7곳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진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우회전 알림이’를 가동하고 있으며, 구는 내년에도 교차로 알림이 3개, 우회전 알림이 1개를 추가 구축할 계획

◆ **지자체**
서울특별시

◆ **출처**
전국매일신문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982

◆ **일자**
2021. 12. 20.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2021년 12월 CSRI 재난안전 Brief